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12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음 10월 10일) 제19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첫 눈’ 메타세쿼이아길 ‘새하얀 환상 속으로’

지난 24일 아침 첫눈이 쌓인 진안군 부귀면 메타세쿼이아길을 한 행인이 걷고 있다. 이 길은 계절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관광과 사진촬영, 드라이브 코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전북가야, 전북의 자존심”

도·남원·장수 등 동부지역 7개시군, 전북가야 선포  
송하진 지사 “유적 발굴·고증 통해 실체 규명할 것”

전북도와 동부지역 7개시군(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지난 25일 남원~장수 경계지역인 봉화산 치재에서 ‘전북가야 선포식’을 갖고 만 천하에 전북가야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 이용호 국회의원, 한완수 도의회 문화건설안 전위위원회 위원장과 도의원, 내외군 군산대 총장, 동부권 7개시군 시장 군수와 시군 의장, 유관기관, 학계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가야 선포식은 경과보고, 재전례(고사), 전북가야 선포, 전북가야 탐제막식, 봉수의식 순으로 치러졌다.

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문헌자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북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인식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야사 연구 및 조사’에 대한 현 정부 ‘국정과제’ 채택에 따른 본격적인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 분위기를 위해 치른 행사다.

전북도는 동부지역 남원 장수를 중심으로 7개시군에 680개의 유적(고분 448, 제철 129, 봉수 68, 산성 45)이 분포돼 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블로그기자단,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 전북가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북가야 유적의 집중적인 발굴과 고증을 통해 철과 봉수로 강력했던 전북가야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부영건설, 서남대 인수하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밝혀

부영건설이 서남대(남원)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폐교 결정 방침에 막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교향)은 지난 24일 “부영건설이 최근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혀 온 바 있다”고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부영건설은 2년 전 전주예수병원과 함께 서남대 인수전에 나섰다 실패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부영건설이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인수 조건으로 이사진 8명의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부영건설의 인수 조건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남대 교수와 교직원 등은 24일 전북 모처에서 긴급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부영건설 인수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이들은 일단 학교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부영건설의 요구를 조건없이 들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 전주한지 세계화 ‘급물살’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전주한지를 중심으로 동·서양 전통종이의 우수성을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전주시에 따르면, 루브르박물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내 지류전문가 60여명과 김형진 국민대 교수와 최성일 전주한지장, 김춘호 경북 무형문화재 한지장 전주교과, 이승철 동덕여대 교수 등 한국발표단 4팀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을 위한 과거 중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서양의 전통종이의 형태와 영구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장 룽 마르티네즈(Jean-Luc Martinez) 루브르박물관장이 앞으로 박물관 소장 유물 복원용으로 사용할 종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전주한지와 문경한지 등 한지 전문가들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루브르박물관이 세계 각국의 전통종이를 다루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열기까지는 루브르박물관과 유네스코 본부, 바티칸교황청 등 다양한 기록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각국을 만나들며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김승수 전주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김 시장이 지난해 전주한지 세계화를 위해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해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주한지의 제작·생산과정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을 이끄는 아리안 드 라 샤펠(Ariane de la Chapelle)의 전주 방문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루브르박물관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인정해 지난 5월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인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Bureau de Maximilien de Baviere) 2세 책상’을 복원하는 데 전주한지를 사용했다.

이날 국제 학술회의에서는 김형진 국민대 교수가 ‘독특한 대어취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루브르 박물관의 장식예술부에 있는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 선제후 왕자 책상.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국제 학술회의서 초청

김 시장 글로벌 홍보 ‘주목’ 복원용 활용할 종이 형태 영구성 주제로 회의 진행

’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프랑스 지류 전문가에게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또, 한지의 특성인 내구성과 보존성을 살려 100% 친환경적 방법으로 제조된 복원용지도 공개했다.

특히, 전주전통한지와 전주한지 샘플북은 물론, 전주한지로 복원된 조선왕조실록과 전주 완관본 서적 등 전주한지로 이룩해낸 다양한 성과물도 전시돼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유럽 지류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장 룽 마르티네즈 박물관장도 이번 학술회의에서 대한민국 한지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루브르박물관에서 소장중인 각종 유물 및 문화재 복원 또는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기존 일본 화지와 중국 선지보다는 내구성과 보존성이 높은 전주한지가 문화재 복원용지로서 더 큰 주목을 받고, 다양한 문화재 복원사업의 전주한지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매일 INDEX

2면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량 확대를 3면 -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4면 - ‘나무야안아줄께’ 이색 봉사

국립세종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주, 한눈에 반하다